

역사 속의 한 장면

오월은 어디에 있는가
오월을 헤쳐보자
광주는 어디에 있는가
노동자 동지들
광주는 여기서 얼마쯤 떨어져 있는가

광주에 가면 오월을 만날 수 있는가
금남로에 가면, 망월동에 가면
우리의 영웅적 투사를 만날 수 있는가
유족들을 만나면, 무명용사들을 만나면
가슴마다 박혀 있는 붉은 오월 꽃을 볼 수 있는가
어디쯤 오월은 있는가

광주는 이제 한반도 동서남북 어디에나 있다
파쇼의 패악성과 제국주의의 독소를
집중투하한 노동자, 농민의 삶과
영웅적인 투쟁의 대열이 있는 곳
오월은 그 곳에 살아 있다

백무산 <오월은 어디에 있는가> 부분



- 사진 경향신문

5 · 18민주화운동과 타밀 해방투쟁

광주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5월, 저는 오늘 스리랑카 타밀족의 처참함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드립니다.

지난달 21일,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자인 스리랑카의 Mr. Kurukulasuriya Marius Rukshan Fernando (36세)가 저희 사업회를 방문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이름이 너무 길어 발음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자, 그는 자신의 애칭이 루키(Ruki)이니 짧은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언론에는 룩산 페르난도(Rukshan Fernando)로 소개되었습니다. 루키는 스리랑카 종족분쟁의 비참한 아픔을 설명하면서 한국인들이 이 아픔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뜻을 <희망세상> 독자들에게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이 5월, 광주의 아픔과 연계하여 스리랑카의 비참한 현실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함께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스리랑카는 인도 남쪽의 아름다운 섬으로 인구 2,000여만 명, 면적 66,000km²이며 싱할리족이 75%, 소수민족인 타밀족은 15%, 그리고 기타종족이 10%입니다. 싱할리족은 B.C 6세기경 인도 북부에서 건너와 남왕국을 이룩하고, 타밀족은 인도 남부에서 건너와 북왕국을 이룩했습

니다. 싱할리족은 불교도이고 타밀족은 힌두교도입니다. 1505년에 포르투갈이, 1602년에는 네덜란드가, 1795년에는 영국 등이 차례로 침략하여 1815년에는 싱할리 왕조가 멸망하고 1948년에 해방이 되었지만 종족간 갈등으로 현재는 내전 중에 있습니다. 배경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일제에 침략당한 이후, 남북으로 갈라지고 또 남한에서의 지역갈등으로 빚어진 상황을 생각하면 자못 비슷한 점이 있기도 합니다.

다수종족인 싱할리족은 집권층으로 타밀족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였습니다. 또한 1956년에 스리랑카의 공식 언어는 오직 싱할리어(語)라는 결정으로 타밀족의 강한 반발을 일으켰고 이러한 종족차별에 대항하여 1983년에 타밀족은 '타밀호랑이'(LTTE)라는 해방단체를 조직하여 싱할리 정부군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타밀족 1,000여명이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그 뒤 지금까지 약 1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루키는 싱할리족 출신으로 타밀족의 인권 해방과 자유를 위해 학생 시절부터 투신한 인권운동가이기에 더욱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싱할리족이 독점한 스리랑카 정부의 타밀족 인종차별정책을 근원적으로 비판하며 유엔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여 지난해 스리랑카가 유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엔인권이사회 이사국 3차선임을 추진하였지만 결국 탈락하게 되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루키는 스리랑카의 반정부 인물로 낙인찍혀, 현재는 싱가포르에 피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독재정부가 그러하듯이 스리랑카 정부도 타밀족 내부를 기묘하게 분열시켜 친정부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타밀족 내부의 갈등도 더욱 심각한 현실입니다.

2006년에 정부군은 타밀인이 거주하는 북부지역 전체를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올해에는 반니(Vanni)지역에서 2,000여명이 사살당하고 5,000여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약 35만 명의 피난민들은 진퇴양난의 기로에 있습니다. 정부군은 주민들이 피난을 가도록 강요하고 타밀해방군은 피난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니, 이들은 정부군과 해방군 사이에서 사실상 인질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일은 민간인이 남쪽으로 피신하면 정부군들은 이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피난민들은 난민캠프에 수용되는데 이곳은 말이 수용소일 뿐, 실제로는 구치소와 꼭 같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돕거나 피신시키는 종교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은 무차별적으로 사살당하

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스리랑카 정부의 이러한 반인권, 비인도적 조치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근원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스리랑카 정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싱할리족은 국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정부조직에 대해 오히려 긍지를 갖고 있는 어이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키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비인간적 정부와 맞서 싸우며 자신의 젊음을 바치고 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 제 집무실 양쪽 벽에 걸린 안중근 의사의 사진을 보면서 그는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일본의 침략자 이등박문(伊藤博文)을 주살(誅殺)한 의사(義士)이며 올해가 바로 하얼빈 의거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루키의 삶에서 안중근 의사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혼의 청년입니다. 저는 그가 곧 결혼하여 안중근 의사와 같은 훌륭한 자녀를 낳고, 타밀족의 해방과 스리랑카의 평화로운 공동체를 꼭 이루도록 영원하며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억울한 형제자매들을 기억하며 광주의 영령들께 해방과 자유의 은혜를 청원합니다. *AM*



표지 - 캘리그래피스트 박병철

희망세상 (매월 1회 발행) 등록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서울라 10828 발행일 2009년 5월 1일 발행인 함세웅 편집위원 양경희, 김혜진 편집취재 송동현, 황석선, 양지연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자인 (주)세아미디어 인쇄처 신희피앤피(주)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20 http://www.kdemocracy.or.kr e-mail webmaster@kdemo.or.kr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 의견으로 사업회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02 책머리에
5 · 18민주화운동과 타밀 해방투쟁 | 함세웅

06 다시 보는 역사의 현장
노동자들의 영혼이 잠든
솔밭산 공원묘역 | 김순천



14 기획연재 _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들어가는 글 II | 서상현

20 사료이야기
빛고을이 내게 말한다 | 어수갑



24 사업회 소식
사업회 임직원 4 · 19혁명 기념식 참석
4 · 19혁명 기념 민주가족운동회 등

32 문화초대석
5인조 퓨전국악밴드
'WHOOL(홀)' 이 던지는 당당한 제안
“국악에 대한 편견을 버려!” | 김미영

38 그곳에 희망이 있다
도심 속 소통의 마중물
성미산 마을극장 | 양지연

42 그날 그들은 그곳에서
낮에는 민미협,
밤에는 부산식당 | 김학민

46 게시판

48 독자마당

